

한국 무복(巫服)의 사회심리학적 연구(1)

양 미 경(한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목적

무속은 기복양재(祈福禳災)가 중심이념이며(장윤식, 1984; 김인희, 1979; 유동식, 1975), 무속의 대표적인 제의(祭儀)가 굿이다(김태곤, 1981). 굿에 대한 연구는 종류와 목적의 분석에만 관심하여 왔으며, 복식은 무속연구의 일부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복식문화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인 무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Goffman(1951)은 복식을 비언어적 언어 중의 하나로 단서(cue)라고 한 바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인 진도 셋김굿을 선택하여, 실제 공연("셋김". 예술의 전당. 1997. 7. 21.)과 영상자료(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제작, 진도셋김굿;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제작, 진도셋김굿)를 통하여 무(巫)의 복식이 무(巫)와 참여자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떠한 속성을 갖는지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입장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및 특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서, Dodd(1981)는 몸짓이나 시간 또는 공간을 상징으로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라 정의하였고, Goldhaber(1983)는 언어를 제외한 메시지들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나 문자로서 표현되지 아니하는 인간의 모든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사고 느낌 관념을 의복 같은 비언어적 해독화 통로를 통하여 이송할 수 있는 메시지로의 변형을 포함한다. 다수의 비언어적 메시지는 시각을 사용하는 수신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해독화 되어져야만 하는 부호화 통로를 통하여 이송된다(Richards, 1991).

2. 무복(巫服)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맥락에서 의미가 상징에 부여되어진다(Fiske, 1982; Goffman, 1959). 굿에서 무(巫)가 입거나 도구처럼 가지고 공연(公演)하는 무복(巫服)은 상징의 단서로서 무(巫)에 의해 특정한 의미나 가치가 부여되어진 것이라 한정할 수 있다. 무(巫)는 자신의 생각을 특별한 복식행위를 통해 부호화(encoding)를 거쳐서 참여자에게 보내고 참여자는 받아들인 상징을 해독(decoding)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무(巫)와 참여자는 의미를 공유하여 새로운 의미체계를 만든다. 그러므로 무복(巫服)에 대하여 공유하는 무

(巫)와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의미의 결과들이 객관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III. 진도 셋김굿에 나타난 무복(巫服)의 분석

진도 셋김굿에 나타나는 무복(巫服)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는, 평상복(平常服) 메시지, 신복(神服) 메시지, 신복(身服) 메시지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1. 평상복(平常服) 메시지

진도 셋김굿은 안당과 성주굿 등으로 시작하는데 평상복(한복) 차림으로 굿의 시작을 알린다. 종천택이에서는 평상복 차림으로 무(巫)가 사용했던 모든 기물(機物)들을 태우고 굿을 끝낸다. 굿에서 무(巫)가 평상복으로 있는 상태는 접신(接神)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메시지는, 무(巫)가 신(神)의 도구로서 사용되고자 신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도구적 특성과 굿을 예비하는 집행자로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2. 신(神)을 나타내는 무복(巫服) 메시지

굿에서는 각 신(神)에 해당하는 의복을 입음으로써, 그 신(神)이 내렸다는 표현을 한다. 신(神)은 무(巫)가 개인적으로 체험해서 생겨나는 신이 아니고, 생활공동체 속에서 그 집단의 문화를 통해서 인식되어온 전통적인 신이기 때문에(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무속에서 신(神)의 표현은 사회의 현재적 구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남부지역의 굿은 신복(神服)을 상징하는 무복(巫服)이 거의 도태되어(김태곤, 1981), 진도 셋김굿에서 신복(神服)은 제석(帝釋) 제차(祭次)에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진도셋김굿의 제석신은 흰 장삼에 홍대를 매고 머리에는 한지로 접은 고깔로 표현된다.

3. 신체(身體)를 나타내는 무복(巫服) 메시지

민간사고(民間思考)에서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 1992). 영혼의 존재를 굿장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가시적인 영혼의 옷 즉 망자의 신체(身體)를 상징하는 복식이 등장한다.

1) 걸쳐놓은 옷

초가망석처울리기에서, 망자의 옷을 신위(神位)를 붙여놓은 병풍 위에 걸쳐놓는데, 망자의 치마저고리(바지저고리)를 사용한다. 서있는 신체를 말한다.

2) 펼쳐놓은 옷

넛풀이, 넛울리기, 회설 제차에서는, 망자의 옷을 저고리 바지 버선의 순으로 사람의 모습대로 펼쳐놓는다. 이 메시지는 신체(身體)가 누워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3) 말아넣는 옷

셋김, 이슬털기 제차에서, 짚자리를 펴고 그 위에 망자의 의복을 넣어 돌돌 만 다음 묶어 세워놓는데, 만지고 볼 수 있는 신체의 역할을 한다.

4) 흔드는 옷

길뚫이 제차에서, 망자(亡者)의 옷을 천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메시지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떠나는 망자의 동적인 실체를 구체화시킨 표현이다.

5) 태워지는 옷

종천택이 제차는 그날 사용했던 망자의 옷 등을 모두 태워사르는 것으로 굿을 마친다. 태워지는 옷의 메시지는 죽음의 단절된 속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진도씻김굿에 나타난 무복(巫服)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평상복(平常服)메시지, 신복(神服)메시지, 신복(身服)메시지로 분석되었다.

(1) 평상복(平常服) 메시지는, 무(巫)가 신(神)의 도구로서 사용되고자 기다리고 있는 도구적 특성과 굿의 집행자로서의 상태를 나타낸다.

(2) 진도 씻김굿에서 신복(神服)은 제석(帝釋) 제차(祭次)에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신복(神服)의 메시지는 속의 인간관을 형상화한 시각적 매체로서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바라는 소망을 반영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3) 신복(身服) 메시지는 ①서있는 신체를 말하는 걸쳐놓은 옷 ②신체(身體)가 누워있는 것을 형상화한 펼쳐놓은 옷 ③망자의 화신(化身)인 말아넣는 옷 ④길을 떠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흔드는 옷 ⑤망자와의 단절을 말하는 태워지는 옷으로 분석된다.